

## 『앵클 톰스 캐빈』의 기독교와 노예제\*

안동현\*\*

### 논문초록

본고는 『앵클 톰스 캐빈』에 나타난 기독교와 반노예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소설은 기독교 관점에서 노예제를 비판한 사회개혁 소설이자 앵클 톰과 에바라는 두 인물을 통해 기독교적인 이상을 형상화한 기독교 알레고리이다.

스토는 흑인노예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부인하고 그들을 다른 인간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노예제가 일종의 신성모독적인 제도라고 본다. 또한 스토가 보기에 노예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위배된다. 노예제도는 가족 성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듦으로써 흑인 가족을 파괴하며, 백인 가정들 또한 노예제로 인한 남성 노예주의 성적인 타락에 의해 손상되기 때문이다.

『앵클 톰스 캐빈』에서 스토는 거의 알레고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앵클 톰과 에바에게 구현된 기독교적인 이상을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를 교육한다. 성경적인 유형화와 알레고리를 통해 스토는 노예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반노예제의 생각을 불어넣고자 노력한다. 알레고리적 인물형상화는 노예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미학적 완결성을 추구한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설교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 속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설자로 나서며 더 나아가 미국 국민들을 향해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기반이 되는 것은 종말론이다. 스토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예제에 반대하도록 요청한다. 19세기 미국 백인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토는 기독교도 작가로서 노예제라는 사회적 부정의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앵클 톰스 캐빈』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문학작품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성취로 기독교 문학사에 기억되어야 한다.

주제어 : 『앵클 톰스 캐빈』, 해리엇 비처 스토, 노예해방론, 기독교, 종말론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2015년 5월 11일 접수, 6월 17일 최종수정, 6월 29일 게재확정

## I. 서론

『앵클 톰스 캐빈 *Uncle Tom's Cabin*』(1852)은 예술적 완성도나 문학적 성취보다 노예해방에 미친 영향력으로 더 기억되는 작품이다. 노예제 반대 신문 『국가의 시대 *The National Era*』에 연재되던 이 소설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첫해인 1852년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수인 30만 부가 팔리는 것을 시작으로 19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Levine, 2000: xi), 수십 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 영향력은 단지 팔린 부수나 번역본 개수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톨스토이(Tolstoy)와 조르주 상드(George Sand) 등 당시 문학계의 국제적인 거목들이 이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았음을 언급했고, 사회개혁에 대한 작가의 열정과 헌신은 후일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Lenin)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Douglas, 1981: 10). 무엇보다 이 작품은 노예제 문제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영향을 끼쳐 이 작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노예해방의 명분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 링컨(Lincoln)은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톤(Harriet Beecher Stowe, 1811-1896)를 직접 만났을 때 “당신이 이 위대한 전쟁 [남북 전쟁]을 일으킨 작은 여성이군요.” 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진다(Koester, 2011: 149).

이 작품은 당대에 불꽃과 같은 맹렬한 반응을 이끌어 냈으나, 재건시대 이후 오히려 무시되며 잊혀졌다. 원작의 인기를 타고 무대에 올려진 극작품들에서 앵클 톰은 백인의 호의를 받기 위해 굴종적인 대우를 감내하는 비겁한 인물로 희화화되어 그려졌다. 현대에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서 ‘앵클 톰’은 “백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동족을 배신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흑인”을 가리키는 용어인데(Koester, 2011: 149), 이는 위엄과 도덕적 고결함을 지닌, 소설 작품 속의 앵클 톰과는 거의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톰킨스(Tompkins, 1978: 501-22)가 감상주의의 힘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때까지 값싼 감수성을 가진 대중소설로만 기억되었을 뿐 문학사의 정전 목록으로부터는 배제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자 중 하나인 볼드윈(Baldwin)은 이 작품이 선동적이며 과잉된 감정을 드러냈고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Baldwin, 1955: 495-501).

예술적 완성도와 인종주의에 대한 후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행사한 지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도인 작가가 기독교도들이 대부분인 독자들을 설득하여 당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종의 “설교적 소설(a sermonic novel)”(Lowance, 1994a: 7)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앵클 톰스 캐빈』이 기독교 텍스트로서 어떤 문학적 형상화 전략 혹은 담론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앵클 톰스 캐빈』에 대한 거의 모든 비평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와의 관련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중심적인 주제로 한 비평들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하면 크게 다음 몇 갈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들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녀의 종교적인 여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전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Hedrick, 1994). 작가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는 작품 내용과의 연관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나타낸다. 성경적인 수사법,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밀레니엄 사상의 영향을 분석한 웨스트라(Westra, 1994: 141-58)나, 성경적인 유형화가 인물의 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로윈스(Lowance, 1994b: 159-86), 독일 철학이나 음악, 당대의 종교적 관행들이 스토의 교리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힐(Hill, 2007) 등이 모두 이 유형의 연구자들에 속한다. 이 연구들은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성경에서 기인한 알레고리적 인물유형이라든가 밀레니엄에 대한 대중의 기대 등을 설명해줌으로써 이 소설을 당대 기독교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이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 중에는 목사, 신학자, 종교학자들의 연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스마일리(Smylie, 1973)와 퀘스터(Koester, 2011)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일리는 이 작품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감’을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는 이런 인물들의 예로 아들을 구하기 위해 탈출하는 엘리자(Eliza)를 도와주는 상원의원 버드 부부나 웨이커 정착촌의 시므온과 레이첼, 모두가 꺼려하는 문제아 혹은 소녀 톰스를 끌어안는 에바(Eva),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앵클 톰을 꼽고 있다. 스마일리는 스토가 ‘그리스도의 공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제의 부정의함에 대해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이것이 이 소설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본다(Smylie, 1973: 67-85). 그가 기독교적인 교리를 이상주의적으로 실천할

때 사회저항적 의미를 갖게 되는 점을 규명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반면 역사적인 맥락은 희석되는 단점이 있으며, 작품 내의 단순하지 않은 갈등관계나 모순을 간과한 점은 아쉽다.

다른 한편 기독교와 이 작품의 인종주의가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잉클 톱이라는 순종적인 흑인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흑인 노예들을 길들이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흑인해방 운동가 개리슨(Garrison)은 기독교적인 비저항의 정신에 찬성하면서도 왜 항상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것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인지를 문제 삼았다(Garrison, 1852). 비록 기독교가 잉클 톱이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되기는 하였지만 기독교로 인해 잉클 톱이 노예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잉클 톱이 구현하는 순종과 평화주의는 노예해방을 위한 적극적인 저항과는 언뜻 모순되어 보인다. 노예의 현실이라는 고난을 믿음을 통해 참고 견디면 천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논리는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길들이고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실제로 작품 속의 악덕 노예상인인 헤일리(Haley)는 종교가 노예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sup>1)</sup>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노예들이 잘 저항하지 않고 온순하며 정직하여 백인들이 부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흑인노예들에게 기독교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여 억압적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순종적인 노예들로 만든다는 의미일 수 있다. 백인 노예주들은 하나님이 흑인들을 노예가 되도록 정했으며 불순종하는 노예들은 현세에서 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가르쳤다(Koester, 2011: 153). 스토는 『잉클 톱스 캐빈에 대한 열쇠 *A Key to Uncle Tom's Cabin*』(1853)에서 “노예를 다루는데 있어 종교가 많은 매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노예주의 말을 인용하며, 복음을 이렇게 흑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노예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하지만, 백인 주인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고 그에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복종(blind, unconditional, unlimited submission)’을 강요하는 것은 진실하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다(Stowe, 1853: 481).

순응적인 톱을 이상적인 기독교인 주인공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독자

1) Harriet Beecher Stowe. (1852). *Uncle Tom's Cabin*. Ammons, E. (Ed.) (1994). New York: Norton.

2. 이후 텍스트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들은 더더욱 노예제에 저항할 필요를 느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 작품이 기독교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는 논의의 편의상 『앵클 톰스 캐빈』을 두 개의 층위를 갖는 기독교 텍스트로 본다. 우선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노예제를 비판한 사회개혁소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등장 인물과 사건들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복음주의 메시지를 형상화한 기독교 알레고리 작품이다. 작가는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와 사회개혁을 별개로 혹은 모순으로 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이상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작가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다. 본고는 우선 이 소설의 사회개혁 메시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독교 알레고리로서의 의미를 검토한 후, 작가가 어떤 답론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기독교 사회개혁 소설로서의 『앵클 톰스 캐빈』

이 작품은 작가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왜 노예제가 죄악인지를 조목조목 밝혔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노예해방의 명분이 기독교만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당시 노예제 폐지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이미 대세였으며 미국 지식인들은 노예제도라는 후진적인 제도를 미국이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스토 자신이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노예무역은 이미 불법이었다(383).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사상은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유독 흑인만 비껴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 대표적인 흑인해방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1818-1895)는 자신의 노예해방사상의 근거를 헌법과 독립정신에서 찾는다. 미국 헌법과 독립정신에서 주장하는 인권이 흑인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Douglass, 1852). 『앵클 톰스 캐빈』의 마지막장인 「맺음말 “Concluding Remarks”」이나 『앵클 톰스 캐빈에 대한 열쇠』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토는 그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그 시대의 민주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의 주된 관점은 그러한 인권 사상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적인 사고이다. 스토가 노예제도에 대해 분노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제도의 반기독교적인 성격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것인 인간의 영혼을 같은 인간일 뿐인 노예주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보고 있다. 그녀가 보기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그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스토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 애쓴다.

당대의 많은 노예주들이 이 작품에 대해 반박하며 주장한대로, 리그리(Legree)같은 악덕 노예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셸비 부인(Mrs. Shelby)처럼 노예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칙들을 가르친 노예주도 있었고, 세인트클레어(St. Clare)처럼 어쩔 수 없이 노예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제도의 본질을 알고 최대한 노예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노예가 인간이 아닌 물건이나 상품으로 취급되는 한 노예주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 있고, 그 경우 언제든 리그리 같은 사악한 주인의 손아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스토의 생각이다. 그런 이유로 셸비 부인은 집안의 재정문제로 톰과 엘리자의 어린 아들 해리(Harry)를 팔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표현하며 노예제도를 저주한다(29). 톰이 셸비 농장에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면서 이후 겪게 되는 비극적인 일은 스토가 말하는 바 “매매와 거래의 행-불행에 의해서 종교적 개선의 기회가 결정되는 저 고난 받는 기독교인들”(385)의 운명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리그리가 소유한 노예들의 경우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고결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소모품인 기계로 취급되며 죽도록 일을 한다. 리그리는 인간을 최대한의 이익을 빼낼 수 있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노예가 병들면 치료할 생각은 안하고 최대한 더 많이 일을 시킨 뒤 죽도록 내버려둔다. 그리하여 그의 농장에서는 건강한 노예들도 6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모든 힘을 소진한 뒤 죽는다(294). 그들은 수명이 최대 6년인 기계들로 취급될 뿐이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팔려나가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스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n you shall be courteously entreated to call and examine, and shall find an abundance of husbands, wives, brothers, sisters, fathers, mothers, and young children, to be "sold separately, or in lots to suit the convenience of the purchaser;" and that soul immortal, once bought with blood and anguish by the Son of God, when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rent, and the graves were opened, can be sold, leased, mortgaged, exchanged for groceries or dry goods, to suit the phases of trade, or the fancy of the purchaser.(283)

그러면 당신은 와서 한번 살펴보라는 정중한 청을 받을 것이고, 구매자의 편의에 따라 날개로 혹은 묶음으로 팔릴 많은 남편들, 아내들, 형제들, 자매들,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발견할 것이다. 예전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찢어지며 무덤이 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고뇌로 산 불멸의 영혼이, 거래의 상황이나 구매자의 기분에 따라, 팔리고, 대여되고, 저당 잡혀지고, 식료품이나 다른 물건들과 교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팔리기 위해 옮겨지는 흑인 노예들을 ‘사람들’이라는 중립적인 표현 대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 즉 ‘남편들, 아내들,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어린 자식들’로 표현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족 일원으로서의 인간적인 특징은, 이들이 날개로 혹은 묶음으로 팔리도록 되어있다는 설명을 통해 물건으로서의 특징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 동시에 작가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고뇌로 속죄된 불멸의 영혼임을 지적하여 물건으로 치환되지 않는 고귀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을 사고파는 행위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떼놓는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물건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비기독교적이다. 흑인 노예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고자 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스토가 보기에 흑인들이 인권을 가진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형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앵클 톰의 영적인 전기(spiritual biography)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톰의 신앙의 여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스토는 흑인 노예가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강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톰은 누구보다도 위엄 있는 기독교인이며, 치졸한 백인 인물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그려진다. 흑인 노예의, 결코 물건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특징, 특히 그 신앙심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노예제가 기독교와 적대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스토는 『앵클 톰스 캐빈에 대한 열쇠』에서, “인간이 그리스도, 그의 몸, 그의 살과 피의 일부를 이익을 얻기 위해 합법적으로 팔아도 된다는 교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이단적이지 않은가?”(Stowe, 1853: 407)라고 말하여 노예제를 기독교와 완전히 적대적인 제도로 규정한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신적인 위치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불경한 사고가 스토가 노예

제에 반대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면, 그녀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예제로 인한 결혼제도와 가족관계의 타락이다. 노예 가족은 노예주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떼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족과 생이별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스토는 하나님이 축복한 가족(단적으로는 백인식으로 결혼식까지 치른 엘리자의 가족)이 이렇게 와해되는 것을 비판한다. 아들 해리가 팔려갈 것을 알게 된 엘리자가 그를 데리고 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축복한 가족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이별은 이 작품에서 흑인들에게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이다.

기독교적인 결혼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 노예들은 노예주의 성적인 탐욕의 대상이 될 처지에 놓인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백인 가정의 타락이기도 하다. 젊고 아름다운 노예는 성적인 도구로서의 가치 때문에 높은 값에 팔린다. 노예시장에서 딸이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어머니와, 그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어 높은 값을 받고자 하는 노예상인의 에피소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86, 288). 남자노예의 가치는 유능함, 끈기, 판단력, 신앙심 등이지만, 여자노예의 경우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늙은 노예 프루(Prue)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인간적인 노예주는 여성 노예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 차례로 노예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한다(189). 마치 가족을 분양하듯 자신의 핏줄을 내다 파는 그러한 행위는 노예제도 하에서 가족제도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성경이 모범으로 제시하는 가족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노예제는 가족을 파괴하고, 흑인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별의 고통을 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작가는 이 작품에서 드러난 노예제의 참상을 기독교적인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보편적인 인권 정신을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과 공유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인권 정신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인간관과 가족관에 비추어서 어떻게 노예제가 이것들을 파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노예제 비판이 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 것은 그녀가 내세우는 기준이 철저히 기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 2. 종교적 알레고리로서의 『앵클 톰스 캐빈』

비평가 앤 더글러스(Ann Douglas)는 『앵클 톰스 캐빈』을 미국판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 앵클 톰은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Christian)처럼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이 작품은 그가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렸다는 의미이다(Douglas, 1981: 29). 과연 그녀의 말대로 이 작품은 앵클 톰의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에서 앵클 톰은 욕이나 요셉, 그리고 예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 인물들과 유사한 고난을 겪는다. 성경 인물들의 순종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자칫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신실한 톰의 삶을 통해, 노예제도라는 비인간적인 제도에 굴하지 않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행로가 그려지고 있다.

앵클 톰은 철저한 예배와 전도, 도덕적 고결함 등을 갖춘 모범적인 기독교인으로 묘사된다. 흑인 노예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는 가부장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였다. 톰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세련된 언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흑인 노예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예배를 이끌어냄으로써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24-6). 또한 그는 기독교적인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쉼비 농장의 부채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아내 클로이(Cloe)는 도망갈 것을 종용하지만, 그는 자신이 도망가면 모든 다른 노예들이 모두 흩어져 팔려가야 한다며 “내가 팔려가거나 아니면 농장의 일꾼이 다 팔려가야 해. 어차피 둘 중 하나라면 내가 팔려 가는 게 나야.”(34)라며 자기희생의 길을 택한다.

두 번째 주인인 세인트클레어의 집에서도, 마치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처럼 그는 자기절제와 성실,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며 그로 인해 주인의 신뢰를 얻는다(176).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신앙 활동에서 위안을 갖는다. 우여곡절 끝에 끝내는 남부 오지(Deep South)로까지 팔려간 앵클 톰은 악덕 노예주 리그리의 손아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이 죽음의 땅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다. 모든 인간성을 거부당하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서로 투쟁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선행들을 한다. 자신이 탄 목화를 할당량을 못 채운 아픈 노예의 자루에 넣어주기도 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 옥수수를 가는 기계를 양보하는 등의 선행들을 그는

베폰다(301). “하나님이 누구예요?”라고 묻는 사람들, “이곳엔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302). 이곳에는 톰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적인 사랑의 손길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있다.

톰은 리그리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리그리가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라 했을 때, 영클 톰은 주인이 자신의 몸을 소유할지 모르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저 없이 선언한다(309). 리그리가 그를 노예감독으로 만들고자 채찍을 주고 다른 노예를 때리라고 했을 때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들을 때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한다(309). 그리고 농장에서 도망간 두 여성 노예 에멀린(Emmeline)과 캐시(Cassy)가 있는 곳을 알지만 그 정보를 리그리에게 주기를 거부한다. 그로 인해 그는 악랄한 두 노예감독 삼보(Sambo)와 킴보(Quimbo)에게 채찍을 맞고 결국은 숨진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본 삼보와 킴보는 깊은 인상을 받아 그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묻고, 드디어는 회심하여 기독교도가 된다(359-60). 결국 영클 톰은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예수를 전하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클 톰은 욥이나 요셉같은 인물들과 병치되지만, 무엇보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그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간 리그리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과 병치된다. 삼보와 킴보의 갑작스런 회개는 리얼리즘적 측면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중요한 알레고리적 의미를 전달한다. 삼보와 킴보는 십자가에서 예수 옆에 달린, 회개한 죄수를 상징하며, 리그리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또다른 죄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mylie, 1973: 81). 하나의 이야기가 그에 상응하는 이차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내러티브 구조가 알레고리다(Abrams, 1999: 5). 다시 말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야기의 구조가 존재하고,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면 그것은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상징(symbolism)이 종종 다의적인 의미를 담아내어 여러 가지의 해석 가능성을 남기는 반면, 알레고리는 분명한 정치적, 도덕적, 혹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쓰인다. 삼보와 킴보, 리그리의 이야기를 통해 스토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낸 두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툼이 꺾박받는 흑인 노예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다면, 에바는 백인 소녀로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를 구현한다. 그녀는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흑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에바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순수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며 노예제가 얼마나 나쁜 제도인가를 드러낸다. 그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헨리크나 마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에바의 아버지 세인트클레어, 이론적으로는 흑인해방의 대의명분에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흑인들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오펜리어(Ophelia)와의 대조를 통해, 어떤 태도가 가장 기독교적인 것인지를 드러낸다. 단적으로 그녀는 곧잘 어린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로 주위 사람들을 당황시킨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노예들을 다 해방할 방법이 없나요?”(241)라고 묻는다든가, 사촌에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한다고 하지 않았어?”(237) 같은 질문을 한다. 이는 대화의 상대방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기독교인의 참된 행동의 근거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녀는 흑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흑인들에게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북부 여성 오펜리어와 달리 에바는 흑인 노예들과 서슴없이 어울리며, 모든 사람이 꺼리고 경계하는 흑인 소녀 톱시(Topsy)에게 거리낌 없이 키스도 한다.

툼킨스가 말하듯이 에바는 단순히 순수한 기독교인 어린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알레고리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Tompkins, 1978: 516). 그녀가 지적하듯이 에바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기 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나눠주는 장면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연상시킨다. 예수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안 것처럼 에바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장치를 통해 에바와 그리스도의 병렬을 분명하게 각인시킨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현상 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하고, 죽으면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준다. 앵클 톰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은 “축복받은 아이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의 영광스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것이다(255).

스토는 톰과 에바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아름답게 구현되어 있다(226-7). 이 장면에서 흑인 노예인 톰과 어린이인 에바는 둘 다 사

회의 약자들이지만, 천국에 대한 갈망과 구원의 확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다.

톰과 에바는 너무 경건하고 선하여 리얼리스틱한 인물이 아니라 알레고리적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평균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주의적 모습을 통해 기독교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신실함의 가치를 두 인물들을 통해 아름답게 형상화 하는 것은 독자의 기독교적인 감수성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스토는 이상적인 두 인물을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가치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시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노예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을 보도록 시각을 교정시킨다. 이를 통해 독자는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노예제도를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알레고리적 묘사는 현실의 문제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독자의 판단을 분명하게 만든다. 즉 노예제 지지와 반노예제의 주장이 각각 맞는 점과 틀린 점을 골고루 가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상주의적으로 성자 같은(saintly) 이 인물들은 독자의 단순한 판단을 요구한다. 앞서 상징과 알레고리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지만, 알레고리는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현실에서의 노예제의 비도덕적 함의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알레고리적인 인물묘사는 작가가 리얼리스틱한 인물을 그려낼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알레고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선이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을 본받아 독자들도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을 작가는 촉구하는 것이다. 이들의 종교적인 경건함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한 비판을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이 인물들을 반노예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노예제 폐지에 기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작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천국의 이미지는 현실 노예제도의 모순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를 통해 작가는 노예제 폐지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결단의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3. 해설자이자 종말론 설교자로서의 작가

위에서는 『앵클 톰스 캐빈』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살펴 보았다. 우선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노예제를 비판한 사회개혁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스토가 묘사한 노예제의 참상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해방의 대의에 공감하게 되었다. 즉 이 소설은 신앙의 관점으로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소설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두 기독교인들인 앵클 톰과 에바를 통해 기독교적인 구원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적인 텍스트이다. 두 인물은 모두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비겁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영혼의 구원과 천상의 보상을 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

그런데 작품의 이 두 측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의미를 보강하고 강화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토는 반노예제라는 당시의 가장 첨예한 이슈를 기독교 관점에서 드러내고, 또 그 기독교 자체를 이상주의적인 두 인물을 통해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의 감수성을 기독교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예제 비판과 독자의 교육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작품의 이런 두 측면을 나눈 것은 논의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작품 속에서 이 두 측면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의미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과 인물을 두고 두 측면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을 때도 많고, 종교적 신념의 실천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인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 비판이라는 작품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작가는 인물을 묘사하고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설자로, 더 나아가 복음 설교자로 작품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 톰킨스가 주장하듯이 스토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타이르고 칭찬하고 비난하고 다가올 진노에 대해 경고”한다(Tompkins, 1978: 517).

작가는 반기독교적인 제도인 노예제를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바로잡도록 기독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제12장 「합법적 거래의 선별된 사례 “Select Incident of Lawful Trade”」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듯이, 이 소설은 노예제를 기독교적이라 주장하며 그 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섰던 남부 교회 및 기독교도들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노예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여기고 있던 북부인들, 특히 북부 기독교인들에 대한 질책이기도 했다. 북부인들은 노예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이 간섭할 수 없는, 남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하였다. 남부와 북부 교회지도자들의 노예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 속에서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스토의 확신에 찬 목소리 탓에 노예제가 비도덕적, 비인간적, 비기독교적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 소설이 행사한 영향력의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성직자가 회중을 두고 설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는 회중으로서의 전체 미국국민을 상징하고 ‘설교’한다. 스토의 설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심판론(eschatology)이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 땅에서 행한 일들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심판론은 이 작품에서 스토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실천론의 근간이 된다. 작품의 중요한 고비마다 작가는 ‘마지막 심판,’ ‘보응,’ ‘하나님께 하는 대답’ 등의 표현을 써서 종말을 상기시킨다(319, 327, 336).

심판론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꺾박 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러한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노예를 운반하는 증기선에서 아이를 빼앗긴 괴로움으로 스스로 강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자에 대해 묘사한 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Patience! patience! ye whose hearts swell indignant at wrongs like these. Not one throb of anguish, not one tear of the oppressed, is forgotten by the Man of Sorrows, the Lord of Glory. In his patient, generous bosom he bears the anguish of a world. Bear thou, like him, in patience, and labor in love; for sure as he is God, 'the year of his redeemed shall come' (114).

인내를 가지라, 인내를! 이와 같은 불의에 분개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자들아. 고뇌의 심장 고통 하나도,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 하나도 슬픔의 사람, 영광의 주에게는 잊혀 지지 않는다. 그의 인내심 있고 자비로운 가슴 속에 그는 한 세계의 고뇌를 참고 있다. 당신도 것처럼 인내 속에 참으라, 그리고 사랑 속에 애쓰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듯 그의 구속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에.

이처럼 스토는 가련한 노예들의 고난을 묘사한 뒤에, 정의로운 분노나 억압받는 자

의 슬픔이 하나님께 하나도 잊혀 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메시지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불합리하고 부정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 작가 스토가 자신의 신앙을 통해 얻어낸 힘겨운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는 이 최후의 심판의 존재를 들어 즉시 ‘실천’할 것을 역설한다. 작가는 세인트클레어의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불의함을 알고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세인트클레어와 오펜리어의 대화이다.

"What a sublime conception is that of a last judgment!" said he, -- "a righting of all the wrongs of ages! -- a solving of all moral problems, by an unanswerable wisdom! It is, indeed, a wonderful image."

"It is a fearful one to us," said Miss Ophelia.

"It ought to be to me, I suppose," said St. Clare stopping, thoughtfully. "I was reading to Tom, this afternoon, that chapter in Matthew that gives an account of it, and I have been quite struck with it. One should have expected some terrible enormities charged to those who are excluded from Heaven, as the reason; but no, -- they are condemned for not doing positive good, as if that included every possible harm."

"Perhaps," said Miss Ophelia, "it is impossible for a person who does no good not to do harm." (271-2)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절묘한 개념인지!” 그가 말했다.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여러 세대의 모든 악을 바로 잡는다는 것, 모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멋진 이미지에요.”

“그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기도 해.” 미스 오펜리어가 말했다.

“나 같은 자에겐 반드시 그렇겠지요.” 세인트클레어가 깊은 생각에 빠져서 말을 멈췄다. “오늘 오후에, 톰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나는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은 어떤 끔찍한 지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가능한 모든 해를 다 포함한 것 같이 말이에요.”

“아마도 그렇겠지.” 미스 오펜리어가 말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작품 속에서 세인트클레어는 노예제의 본질과 해악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 제도를 철폐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는 인물로 나온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실천하

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최후 심판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되는 이 장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용에서 보듯이 세인트클레어는 심판론을 지금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시킨다. 그는 천국이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죄이지만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또한 커다란 죄를 짓는 셈이라는 것이 세인트클레어의 각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스토는 독자도 세인트클레어와 같은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한다.

이 논의를 이 대화의 맥락인 노예문제와 연결시키면, 스토는 노예문제에 있어 회색지대는 없으며 모든 사람은 노예제 반대자가 아니면 찬성자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것은 양쪽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에서, 노예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행동하지 않는 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무서운 경고는 독자들에게 양자택일의 판단을 재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설교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스토는 1878년 개정판 서문에서 이 소설은 고난 받아 죽어가는 한 노예의 비전에서 시작되었고 자신에 의해 지어졌다(composed)기 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졌다(imposed)고 말한바 있다(Stowe, 1878: xi). 이것은 마치 강단의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설교문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씌어 지듯이 자신의 소설도 자신의 의식으로 이야깃거리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소설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장인 「맺는말」에서 스토는 열정적인 설교자가 회중의 반응을 요구하듯 연이어 독자를 부르고, 한 단락에서만 무려 9개의 수사어문문을 나열하여 독자의 반응을 요구한다(383).

스토는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노예제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다. 그녀는 남부와 북부의 기독교 교회가 반 기독교적인 노예제를 철폐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미국을 지키자고 탄원하며, 그래야만 지상의 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

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말로 작품을 마무리한다(388).

### III. 결론

위에서는 『앵클 톰스 캐빈』에서 스토가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당대의 노예문제에 대해 발언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당대의 사회적 모순에 눈감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사회를 보는 관점과 일치시킨 스토는 기독교 문학이 사회변화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예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기독교의 관점으로 노예제의 비인간성과 비도덕성을 비판했으며, 더불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독교인 인물들을 제시하였다. 작가는 참된 기독교적인 가치를 앵클 톰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노예제도 비판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스토는 앵클 톰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흑인들 역시 신실한 동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그들이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작가는 참된 기독교인이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고난 받는 톰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예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같은 어린이 에바의 알레고리적 형상화를 통해 참된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레고리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범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선악의 이분법으로 독자에게 현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물들을 이상적 기독교인들로 묘사한 것은 사회비판과 모순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에 흔히 있을 법한 리얼리스틱한 인물들을 제시한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노예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스토가 적극적인 해설자로, 더 나아가 설교자로 작품 속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스토는 기독교인 독자를 회중으로 상정하고, 설교자의 목소리로 노예제가 죄악임을 설교하여 독자를 반노예제 진영으로 끌어들인다. 작가는 소설 속의 사건들의 의미를 종말과 심판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주고, 더불어 독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노예제의 참상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노예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한다.

이 소설의 사회 개혁 메시지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에바와 앵클 톰이 보여주는, 외양상 순종적이고 평화주의적인 가치가 남북 전쟁을 촉발할 정도의 실천적인 힘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

인 정신에 매우 충실함으로써 저항적이고 사회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작가는 천상의 가치를 들어 현실의 모순을 묻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를 현실의 모순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한 것이다. 사회변혁을 이끌어낸 위대한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듯, 노예제 폐지라는 그 시대의 과제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연결해 내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낸 이 작품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19세기 중반 미국 백인 계급의 일원인 스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앵클 톰스 케빈』을 통해 노예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스톤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인 저항이 기독교적인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작품 속에서 조지 해리스(George Harris)는 노예의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탈출하는데, 스톤은 그의 이런 해방의 추구를 동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가 도망가는 과정에서는 비기독교적인 반항자로 그려지다가 자유를 성취하고 나서야 진정한 기독교인처럼 묘사된다는 점은 작가가 이상적으로 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조지 해리스 같은 저항자는 배제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는 앵클 톰처럼 순종하고 인내하는 인물을 이상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린 것과 상통한다. 순종적인 인물을 이상적으로 그린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하지만, 스톤 자신이 이 작품에서 내는 목소리처럼 기독교인은 의로운 분노의 목소리도 가질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다. 이것은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소설을 일종의 설교라고 했을 때 그 설교의 주 대상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백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설교 속에서 흑인들은 작가가 성경의 관점에서 품고 도와야 할 인도주의적 자선의 대상이지 함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동료는 아니다. 나중에 그 관점을 철회하기는 하였지만 조지 해리스의 가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방된 흑인노예들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내는 결말에서는, 그녀가 흑인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인종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식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식민주의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미국 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동등한 이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많은 흑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크게 반발하며 자신들은 해방된 뒤에도 미국에 머물겠노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톤의 관점은 흑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다.<sup>2)</sup> 다시 말해 스톤은 선량하고 양심적인 백인의 관점으로 노예 문

제를 보았는데 이것이 흑인 자신들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자기 계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작가든 자기가 속한 계급과 시대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스토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판을 원칙에 입각한 정직하고 열린 태도로 받아들였다. 작품이 발표된 후 남부 백인 노예주들이 이 소설에 드러난 노예제의 현실이 과장,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스토는 『앵글 톰스 캐빈에 대한 열쇠』를 발표하여 자신이 이 소설에서 묘사한 일들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Stowe, 1853). 그들의 비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으므로 그녀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들이 작품 속 흑인들의 순종적인 이미지와 라이베리아 식민지 건설이라는 결말에 대해 비판하자 이 비판에 대해서 스토는 백인 노예주들에게와 달리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에는 자신이 이 소설을 다시 쓴다면 조지 해리스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식민주의를 사실상 철회하였다(Levine, 2006: xiv; Donovan, 1995: 24). 이후 발표된 또 다른 반노예주의 소설 『드레드: 크고 음울한 늪의 이야기 *Dred: A Tale of the Great Dismal Swamp*』(1856)에서는 흑인의 모습을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그린다. 이렇듯 스토가 자신의 작품에 드러난 흑인 형상화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음 작품에서 그 비판을 수용하려 노력한 것은 그녀의 작가적 정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쓰여진 이후 작품들이 과연 더욱 발전된 인종 의식을 담고 있는지는 새로운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스토의 아버지 비처 목사가 식민주의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식민주의의 의미와 스토의 작품에 나타난 식민주의적 요소, 그리고 당대 흑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도너번(Donovan, 1995: 24)과 소노른(Sonneborn, 2009: 56)의 논의를 참조.

## 참고문헌

- Abrams, M. H. (1999)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7th ed. Boston: Heinle & Heinle.
- Baldwin, J. (1955). "Everybody's Protest Novel." in Ammons, E. (Ed.) (1994). *Uncle Tom's Cabin*. New York: Norton.
- Donovan, J. (1995). 'A Source for Stowe's Ideas on Race in "Uncle Tom's Cabin."' *NWSA Journal* 7(3). 24-34.
- Douglas, A. (1986). "Introduction: The Art of Controversy." in Douglas, A. (Ed.) (1986). *Uncle Tom's Cabin*. New York: Penguin.
- Douglass, F. (1852). "What to the Slave Is the Fourth of July?" in Dworkin, I. (Ed.) (2014)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an American Slave*. New York: Penguin.
- Hedrick, J. D. (1994). *Harriet Beecher Stowe, A Life*. New York: Oxford UP.
- Koester, N. (2011). "Harriet Beecher Stowe on Slavery." *Word and World* 31(2). 149-156.
- Levine, R. (2000). "Introduction." in Levine, R. (Ed.) (2000). *Dred: A Tale of the Great Dismal Swamp*.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 Lowance, M. I. (1994a). "Introduction." in Lowance, W. & De Prosop (Eds.) (1994). *The Stowe Debate: Rhetorical Strategies in Uncle Tom's Cabin*.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 \_\_\_\_\_. (1994b). "Biblical Typology and the Allegorical Mode: The Prophetic Strain." in Lowance, W. & De Prosop (Eds.) (1994). *The Stowe Debate: Rhetorical Strategies in Uncle Tom's Cabin*.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 Smylie, J. (1973). "Uncle Tom's Cabin Revisited." *Interpretation* 27(1). 67-85.
- Stowe, H. B. (1853). *A Key to Uncle Tom's Cabin*. Boston: John P. Jewett.
- \_\_\_\_\_. (1856). *Dred: A Tale of the Great Dismal Swamp*. Levine, R. (Ed.) (2000).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 \_\_\_\_\_. (1878). "Introduction." *Uncle Tom's Cabin*. Boston: Houghton, Mifflin & Co.
- \_\_\_\_\_. (1852) *Uncle Tom's Cabin*. Ammons, E. (Ed.) (1994). New York: Norton.

- Tompkins, J. P. (1978). "Sentimental Power: *Uncle Tom's Cabin* and the Politics of Literary History." in Ammons, E. (Ed.) (1994). *Uncle Tom's Cabin*. New York: Norton.
- Westra, H. (1994). "Confronting Antichrist: The Influence of Jonathan Edwards's Millennial Vision." in Lowance, W. & De Prospro (Eds.) (1994). *The Stowe Debate: Rhetorical Strategies in Uncle Tom's Cabin*.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 Garrison, W. L. (1852). "Review of *Uncle Tom's Cabin*" in *The Liberator*.  
<http://utc.iath.virginia.edu/reviews/rere02at.html>. (검색일 2015.4.30.)
- Hill, P. (2007). "*Uncle Tom's Cabin* as a Religious Text."  
<http://utc.iath.virginia.edu/interpret/exhibits/hill/hill.html>. (검색일 2015.4.30.)

## ABSTRACT

### Christianity and Slavery in Uncle Tom's Cabin

Dong-Hyun Ah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abolitionism in *Uncle Tom's Cabin*. The novel is a Christian literary work in that it is a social criticism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and at the same time a Christian allegory which embodies a Christian ideal through Uncle Tom and Eva.

Stowe regards slavery as a kind of blasphemy because it denies that African Americans are also children of God. From Stowe's Christian point of view, African Americans must not be treated as someone else's property. Slavery also opposes the biblical view of family and marriage. Slavery destroys African American families by tearing apart their family members. White families were also corrupted by the sexual depravity of male slave-owners.

*Uncle Tom's Cabin* embodies the Christian values through Uncle Tom and Eva. Stowe educates readers by showing them the Christian values exemplified in the heroes who are almost allegorical figures. Through biblical typology and allegory, Stowe tries to instill anti-slavery ideas into her readers that are on the fence in regards to slavery. Allegorical characterizations make clear what is right and to be done about the institution of slavery.

The novel can be seen as a 'sermonic novel' rather than a piece of literature with typical artistic features. The basis of this sermon is eschatology. Stowe asks her contemporary readers to act positively against slavery with the last judgment in mind. Despite the limitations of being a white in the 19th century, Stowe endeavored to get rid of the social injustice of slavery as a Christian writer. What she achieved in *Uncle Tom's Cabin* should be remembered as a great accomplishment in Christian literary history.

Key Words: *Uncle Tom's Cabin*, Harriet Beecher Stowe, abolitionism, Christianity, eschatology

